

The Media Korea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인도네시아 땅그랑 반트 한인회 ... 인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네 번째 수낫단 행사 열어, 현지 지역봉사로 한인동포의 위상을 높이는 거름이 되,

文 “통 크게 합의하자” 金 “원점 돌아가지 말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김정은은 모두발언을 통해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합치자” 고 말했다고, 문 대통령은 “통 크게 대화 나누고 합의에 이르자” 고 화답했다.

특히 김정은은 모두발언을 하던 중 평양냉면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듯 ‘통 큰 합의’ 를 강조했고, “하루 종일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 는 문 대통령의 말에 김정은은 너털웃음을 보였다.

다음은 두 정상의 모두발언 내용 전문이다.

김정은 :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200m 거리되는 짧은 거리를 오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면서 보니까 그 분리선도 사람이 넘기 힘든 높이로 힘든 높이로 막힌 것도 아니고 너무나 쉽게 넘어온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 넘었는데 오늘 걸어들어오면서 보니까 왜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랬나, 왜 이렇게 오기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이 자리에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제되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이런 만남을 가지고도 좋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낙심을 주지 않겠다. 앞으로 마음가짐을 잘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만나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남이 교차하는 속에서 한 200m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와 번영 북남 관계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순간에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관심사 되는 문제들 특 더놓고 이야기하고 좋은 결과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만들어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원점에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마음가짐을 잘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가는 계기가 돼서 기대하시는 분들

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결과가 좋아서,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대통령께서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멀리 온, 멀다고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 : 오늘 우리 만남을 축하하듯이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 한반도의 봄이 한창입니다. 한반도의 봄,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여기 판문점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들 해외동포들이 거는 기대도 아주 큼니다.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도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못한 이야기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출처: 중앙일보]

“새로운 역사 시작되고 있다” “상상할 수 없던 장면” 외신도 앞다퉈 보도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에 전 세계 언론도 주목했다.

전 세계 36개국에서 3000명에 달하는 취재진이 몰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첫 장면은 CNN, BBC 등 주요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장식했다.

방송사들은 생중계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속보를 내보냈고,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등 유력 일간지들 또한 실시간 보도와 동영상 스트리밍 등을 통해 상황을 전했다. 가장 공통으로 주목한 장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이었으며, 이를 두고 “역사적인 장면” 이란 말이 쏟아져 나왔다.

CNN은 홈페이지 톱 기사 제목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A new history begins)로 걸어두고 실시간 상황을 보도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전쟁 이후 두 코리아를 구분한 경계선을 넘은 첫 번째 북한 정상” 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했다. BBC 또한 “한반도 역사에서 엄청난 순간” 이라는 속보를 띄운 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을 내보냈다. “유례가 없는 장면” 이란 분석과 함께였다. 또 “김정은은 역사를 만들었으며, 군사분계선을 넘은 최초의 북한 정상이 됐다” 고 전했다.

이밖에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 만나려고 남쪽 경계선을 건너 역사를 만들었다. 마지막 냉전 시대의 대치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AP통신), “역사적인 한반도 대화를 위해 김정은이 휴전선을 건넜다”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가 나왔다.



▲ 남북정상회담 뉴스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는 제목의 톱 기사로 띄우고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 CNN.

NHK 방송, 니혼TV, 후지TV, 아사히TV 등이 생중계로 이를 전했다. “한국전쟁의 종전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 희망에 불을 지폈다” (교도통신) “김 위원장은 북한 정상 중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요미우리신문) 등의 보도를 내보냈다.

중국 환구시보는 “문재인과 김정은 손잡다” “김정은 평화의 집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으며, 신화통신은 “김정은, 38선 건너다” 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다.

인도네시아 땅그랑 반튼 한인회, 인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네 번째 수넛판 행사 열어 현지 지역봉사로 한인동포의 위상을 높이는 거름이 되

재인도네시아 땅그랑 반튼 한인회(회장:오세명)는 지난 26일 땅그랑 소재 임페리얼 골프클럽에서 땅그랑,반튼에 거주하는 저 소득층 자녀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넛판 마사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땅그랑 군수(DR. Komarudin, MAP)와 오세명 땅그랑 반튼 한인회회장, 이세호 땅그랑,반튼 한인회 초대회장, 채만용 땅그랑 반튼 한인회수석부회장, 정주성 땅그랑 반튼 한인회수석부회장 및 많은 임원이 참석하여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 지역 현지주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저 소득층 자녀의 수술을 도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수넛판 마사행사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지역봉사의 일환으로 2년에 한번 지원하는 대대적인 행사로 현지 언론과 공직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양국 국민간의 훈훈한 정을 한자리에서 나누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땅그랑군수(성명기재)는 축사에서 “문화의 차이로 아무도 실행하지 않는 수넛판 마사행사를 기획 및 실천해 주는 땅그랑반튼 한인회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별써 4회째 8년간 집행해 오고 있는 행사로 이번 행사를 위해 재인니 외식업 협회를 비롯한 지역내 한인기업의 많은 후원으로 꾸민 선물까지 마련해 주는 행사였고 4회를 거듭하면서 지역 현지의 관공서 및 주민들과 한인동포간의



소통과 이해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또한 지역내 한인동포와의 공감대 형성되어 우리동포의 현지생활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수넛판 마사행사는 인도네시아내 타지역 한인회에 까지 알려져 향후 각 지역에서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



과 관심이 솔솔 나오고 있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의 큰 행사로 확산 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창의적인 봉사와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의 활발한 활동은 인도네시아내 우리 한인동포를 위한 봉사와 희생이 그 바탕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디어 코리아 강재홍

부정부패 막겠다며 현금거래 규제 추진...실효성은 '글썸'



▲ 인도네시아에서 쓰이는 루피아 지폐.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인도네시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현금거래에 1억 루피아(약 770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주간 탐포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금거래 규제 법안을 최근 국회(DPR)에 제출했다.

법안 제출을 주도한 인도네시아 자금세탁 감시기관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는 해당 법안이 올해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키아구스 아흐마드 바다루딘 PPATK 소장은 “이는 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등 행위를 저지르려는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금거래 규제 법안

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는 세무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6천만명의 동남아 최대 경제국이면서도 거래의 85% 이상이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키아구스 소장은 이런 규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현지에선 일반 시민보다는 부패척결위원회(KPK)의 감시를 받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현금거래 규제 의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이

란 전망이 나온다.

PPATK는 이와 관련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가 포착되는 빈도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모두 1천여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은행 등을 통한 전자거래는 53건에 불과했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각 정당은 총력을 기울일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정치 전문가들은 경쟁이 과열돼 금권선거가 예년 이상으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연합뉴스]

인니 비즈니스의 脈

20년 세월! 한인동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과 인허가, 비자대행 업무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뢰와 성실로 다져온 CITRA CONSULTING은 한인동포의 어려움과 보다 안정된 사업을 위해 함께 해 나갈것입니다

Try your best rather than be the best

CITRA Consulting

주요업무

시장조사 / 회사설립 / 수출입 관련 서류 및 보세구역 / 체류관련 / 기타 업무

“올해 라마단과 르바란 연휴 이렇게 진행된다”

정부, 르바란 대체휴무일 당초 보다 3일 추가... 실제 르바란 휴무 총 12일 라마단 금식 시작일 5월 17일 전망



이슬람교도의 최대 명절인 르바란(이들피트리) 대체휴일을 당초 4일에서 3일을 추가함에 따라 총 7일로 확정했다고 18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이슬람력 1439년) 르바란 연휴가 실제로 6월 9일(토)부터 시작돼 6월 20일(수)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 르바란 법정공휴일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앞서 정부 당국은 지난해 9월 22일 대체휴일 관련해 종교부·인력부·행정개혁부 등이 참여하는 공동장관령을 발표하고, 르바란 대체휴일을 르바란 법정공휴일인 6월 15일과 16일 전후로 각각 이틀씩 총 4일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지난 4월 18일 개정된 공동장관령을 발표했다. 4일간 대체휴일에

6월 11일(월)·12일(화)과 6월 20일(수) 등 3일을 추가해 대체휴일이 총 7일이 됐다.

이날 관련 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한 인력개발·문화조정부 부안 마하라니 장관은 대체휴일 3일 추가와 관련해 “르바란 귀성과 귀경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슬람력 9월이며 성월(聖月)인 ‘라마단’은 오는 5월 17일(목)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기간 이슬람 신자들은 한 달간 해가 떠 있는 동

안 금식과 금욕 생활을 하며 신앙심을 되새긴다.

라마단과 르바란 개시일은 종파마다 역법의 계산방법이 달라 하루 이틀 차이를 보일 때도 있으나 올해는 동일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국가항공우주연구원(LAPAN) 토마스 자말루딘 소장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라마단과 르바란 시작일이 동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최대 이슬람단체인 나들라똘올라마(NU) 등은 육안으로 초승달 관측 결과를 토대로 라마단과 르바란 시작일을 확정하는 반면, 제2위 이슬람단체인 무하마디아는 ‘히삼’이라는 천문계산법으로 이슬람 축일을 확정·발표해 축일 시작일이 하루 또는 이틀 차이가 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 중소기업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 도입 검토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소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택스 홀리데이(일시 면세조치)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35호’에서 제외된 5,000억 루피아 미만의 중소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투자조정청(BKPM)의 토마스 램봉 청장은 “중소투자자에게 세금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현재 택스 홀리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전체 업종 중 1%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와 혜택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하리야디 협회장은 “토마스 램봉 청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며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우대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국제관계 담당 신타 캄다니 부소장은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인도네시아 조달청과 협력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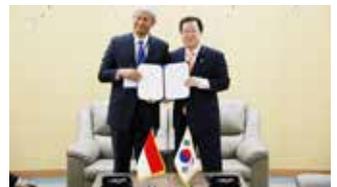
박춘섭 조달청장은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라장터엑스포와 국제 조달 통상·전자조달 확대 워크숍에 참석한 아구스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조달청장과 한-

인도네시아 조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를 계기로 양국은 전자조달과 조달제도 교류 협력을 넘어 공공조달 전시회, 바이어 상담회 등 조달기업 지원

행사의 상호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해외 조달기관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기념촬영 하는 박춘섭(오른쪽) 조달청장과 아구스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조달청장 (조달청 제공=연합뉴스)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 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s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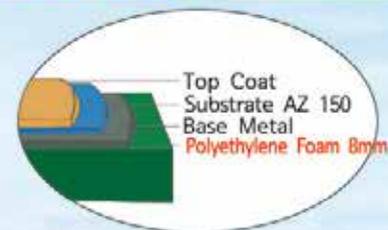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일점식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 25mm)
3. 35mm Spandek (920, 35mm)
4. 110mm Seaming Type (Roll on Site) (420, 110, 225)
5. Genteng Metal (기 와) (82, 35, 20)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질판은 호주기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점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무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신한금융,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카뱅’ 만든다



신한금융그룹이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카카오뱅크’를 선보인다.

현지 금융회사 인수·합병(M&A)은 물론 디지털뱅킹을 앞세운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해외 영업전략의 요충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신한카드의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법인인 신한인도파이낸스를 통해 디지털 뱅크를 론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한인도파이낸스는 2015년 12월 인도네시아 재계 2위 살림그룹(Salim Group)의 자동차 판매 계열사 인도모빌의 자회사 스와달마파이낸스의 지분 ‘50%+1주’를 사들여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국내 전업카드사가 해외 현지인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신한카드 사장이었던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크게 공을 들인 프로젝트였다.

위 행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살림그룹의 호주 석탄광산 개발에 7천500만달러 규모의 금융을 주선하는 등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시장을 공략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번 디지털 뱅크 론칭 역시 그룹의 글로벌 전략을 총괄하는 신한은행 주도로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카카오뱅크 개념의

모바일 앱 등을 선보이는 개념”이라며 “기존 조인트벤처에 디지털뱅킹 사업 모델을 추가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한금융은 인도네시아 소비자금융회사인 ‘PT BFI 파이낸스 인도네시아’ 지분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한 데 이어 자산운용사 지분 인수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2억6천만명(세계 4위)이 넘는 인구와 매년 5%대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 때문이다.

여기에 섬나라의 특성상 디지털 금융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 지역이란 점도 현지 영업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신한금융은 인도네시아에서 론칭할 디지털 뱅크를 통해 다양한 계열사간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용병 회장은 최근 싱가포르개발은행(DBS) 회장을 만나 해외 시장에서의 디지털 뱅크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DBS는 지난 2016년 4월 인도 최초의 모바일뱅크 ‘디지털 뱅크(Digibank)’를 선보여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바 있다.

디지털 금융을 내세운 해외 진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신한은행 관계자는 “살림그룹도 계열사 내 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역시 다양한 스테디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늦어도 하반기에는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외국인 인력 고용규제 완화 추진에 반대 목소리 확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말 공포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규정한 대통령령 ‘2018년 제20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

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령은 외국인 취업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6일로 단축하고, 온라인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RPTKA)는 서류 접수 후 2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시급할 경우, 일단 고용 후 2일 내 관련 기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RPTKA)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입국을 초래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대통령령을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도 “외국인 유입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월진당(PBB, Partai Bulan Bintang)도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대통령령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수프 갈라 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은 2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소리가 나오다니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유수프 갈라 부통령은 이어 “(새 대통령령은) 높은 품질의 기술과 자본을 가진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한다. 인도네시아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투자조정청(BKPM)의 토마스 렘봉 청장도 “복잡한 허가 절차 등은 높은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국내에 들어오는데 방해된다”라고 말하며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매우 작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대학 수준 향상, 가톨릭계 대학이 이끈다

인도네시아 교회가 운영하는 두 곳의 대학교가 정부의 대학 교육 품질 향상 프로그램의 멘토 학교로 선정됐다.

자카르타 소재 아프마 자야 가톨릭대학교(Atma Jaya Catholic University of Indonesia)와 중부 자바주 스마랑 소재 수기자쁘라나따 가톨릭대학교(Soegijapranata Catholic University)가 인도네시아의 일류대학 29곳에 포함돼 타 대학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됐다.

선정된 멘토 학교에는 교육 수준이 낮은 학교들이 배정



되며, 이들은 멘토 학교들로부터 학문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리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4,600개의 주립 및 사립대학들이 있지만 대부분 교육의 질은 낮은 편이다.

아프마 자야 가톨릭대에는 동부 누사틍가라주 소재 학교

4곳이 배정된다. 수기자쁘라나따 가톨릭대에는 북부 수마트라주 메단 소재 4개 학교가 배정된다.

인도네시아 전국가톨릭대학교위원회 위원장 빈첸띠우스 다르미난 음블라 신부는 “많은 학교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가톨릭계 대학을 포함해 교육 수준이 낮은 많은 대학들이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역량을 갖춘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OOD
interior + taste + service

산정 SANJUNG
REAL KOREAN BARBECUE

산정의 깊고 정갈한 맛, 정성스러운 서비스
그리고 품위있는 분위기를 즐기십시오.

최고의 한식 셰프가 만든다

평양식 메밀냉면

명품만두

전통 한식 바베큐

명품만두

Pork BBQ 7 Items!

Barbeque pork 20% Off

Karawaci
Jl. Boulevard Palem Raya No.2809 Taman Sari Uppa Karawaci
(021) 547-3172-3. Hp: 08222-09-55547

Cikarang
Jl. Majapahit, Desa Cibatu Kav.62, Uppa Cikarang
(021) 2909-3000, (021)2909-3555 Hp: 0812-9037-7717

Pantai Indah Kapuk
Ruko the Gallery Block 8 unit FC Jl.Pantai Indah Utara 2, Pantai Indah Kapuk
(021) 3005-1650, (021)3005-1660 Hp: 0811-823-9000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4·27 판문점 선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로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땅그랑 한인회 5월 행사 푸짐 다문화 가정 한마음 큰잔치, 어버이날 행사 코리안 페스티벌 맥스몰과 함께 주최



느끼게 만드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번 5월에는 가라와치 맥스몰에서 리본 맥스몰과 땅그랑 반트 한인회 공동 주최로 열리는 코리안

재인도네시아 땅그랑 반트 한인회(회장:오세명)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5월 행사를 살펴보면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행사가 있다,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는 작년까지 다문화 어린이 큰잔치의 타이틀로 해 왔던 행사로 금년부터 명칭을 바꾸었고 땅그랑 다문화 가정 행사는 땅그랑 소재 찌뜨라야 찌뜨라 땅그랑 코리안(회장:서재수)에서 오래 전부터 주관, 진행해 왔던 행사로 4년전부터 땅그랑 한인회에서 후원해 오고있는 행사이다, 올해는 재인니 한인청년회의 행사 참여로 가족사진등의 촬영 후원을 함께 한다.

땅그랑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청소년은 올초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되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겨울을 만끽하고 한국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역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약소하나마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소박한 행사를 땅그랑 반트 한인회 초대 이세호 회장때부터 해 오고 있어 한국 전통의 경로사상을 잠시나마



페스티벌 행사가 10일부터 13일까지 땅그랑 가라와치에 있는 맥스몰에서 열린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리본그룹과 한국문화원, 재인니 한국관광공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코트라, 한국 콘텐츠 진흥원, 해외 한식당 자카르타 협의체등에서 후원하는 매머드급 행사이다.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비빔밥 퍼포먼스, 한국전통 무용, 난타 퍼포먼스, 한국음식 시식회, K-POP댄스, 어린이 사생대회, 메이크업 시연회 등 한국을 알리는 많은 행사들이 4일간 열리며 전시회로는 한국 길거리 음식&스낵, 한국 관광소개, 미용 &헬스케어, VR게임등 다양한 전시회가 펼쳐진다.

우리 한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가라와치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인과 함께 어우러져 행사를 진행함은 우리 한인동포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함께 하는 이미지의 연출로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 현지인과의 소통과 상생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땅그랑 반트 한인회는 초대 이세호 회장의 출범이후 2기 하연수 회장, 3기 오세명 회장의 지역 한인들을 위한 큰 봉사과 노력으로 인도네시아내 명실상부 가장 튼튼하고 결속력있는 한인회로 자리잡고 있어 타 지역 한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한 한인회 임원 및 사무국을 운영하는 모두가 자기 시간을 쪼개어 희생하는 모습들은 한인동포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쁜 일정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땅그랑 반트 한인회는 초록빛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5월 다양한 행사에 우리 한인동포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있기를 바란다.

인니 언론인,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에 관심



▲ '남북 정상회담 관련, 현지 홍보활동을 위한 간담회' 모습 [사진: 한국문화원 제공]

김창범 대사, 인도네시아 언론 대상 남북정상회담 관련 홍보 활동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국민의 평가, 대북제재 효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가능성 등.

지난 19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현지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이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에게 한 질문들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텔레비전방송, 신문, 온라인미디어 등 현지 언론 10개사 소속 국제부 기자들이 참석했다. 김창범 대사는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은 11년 만에 개최되는 만남이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소중한 기회이고,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분단되어 있다며 남북한의 통일은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염원하는 일이라고 설

명했다. 김 대사는 판문점이 회담장소인 것에 대해 북한 최고지도자가 최초로 남측 땅을 밟는 의미가 있다며, 최근 한국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남북정상회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4.27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창범 대사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한국 정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산업장관, "바뻘섬 주요 산업, 고부가가치 전자 산업으로 전환해야"



15일자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아이르랑가 산업장관은 최근 리아우주의 바뻘섬을 시찰하고 섬의 주요 산업을 조선업에서 고부가가치 전자 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바뻘섬의 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70%는 전자 장비 및 부품 업체로 앞으로는 바뻘섬만 아니라 전자 산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까지 진행 가능한 사이클을 확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례로 1999년부터 바뻘에서 반도체 등을 생산하고 있

는 독일계 반도체 업체 인피니언 테크놀로지(Infineon Technologies)를 거론하며 "이 회사는 에너지 분야의 부품 생산에서 최고 점유율을 자랑하며 이 외에도 발전소와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 매출 신장을 이끌어 섬의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바뻘섬의 주요 산업의 조선업에 대해서는 "세계 유가의 추세에 좌우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뻘의 경제 성장률은 2% 안팎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높려면 산업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앞으로 전자 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임을 표명했다.

바구스 투어

인도네시아 비자대행
BAGUS/ 조은여행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한 주말 비자여행!!! 이제 바구스투어에서 시행합니다.

싱가포르 비자 여행

- ☑ 공항 픽업 서비스
- ☑ 리버보트
- ☑ 점심
- ☑ 공항 센딩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비자여행 일요일도 비자 가능합니다

평일 12시 전 여권 수령가능
2~3시 인니 귀인 가능

손님이 원하실 경우
호텔 무료 1박 서비스

Office : (+65) 6224 4330
 HP : (+65) 9060 2449, (+65) 9821 3672
 카톡 ID : 소장 김경수 bagusvisatour
 Address : 49A South Bridge Road, Singapore 058681
 E-Mail : bagustour2015@gmail.com

13분동안 잠수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바자우족'

20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은 인도네시아의 '바다 유목민'으로 잘 알려진 '바자우족'에 대해 보도했다. 1천 년 이상 동안 수상가옥에서 살며 바다를 지킨 바자우족은 나무로 만든 물안경 크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학 및 유전학 측면에서 인간의 비장에 관한 많은 정보는 없지만 깊은 곳까지 잠수하는 바다표범들은 큰 비장을 갖고 있다"며 "바자우족은 잠수를 하

깊은 잠수는 물론 물속에서 13분 동안 잠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을 낀 채 최대 70m 바다 속으로 잠수가 가능하며 수중에서 최대 13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다. 이들은 '물고기 종족'으로 불릴 만큼 하루 일과의 60% 이상을 물에서 생활한다. 이들을 조사한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원 멜리사 일라도(Melissa Ilardo)는 "비장(脾臟)은 물속에 숨을 참을 때 혈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바자우족의 비장은 육지에 거주하는 이웃 부족인 살루안족보다 50%정도 더

큰 안하든 비장이 다른 부족들에 비해 확연히 컸다"고 설명했다. "유전자 중 25곳에서 확연한 차가 있었고 그중 비장의 크기를 결정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통제하는 'PDE10A'로 알려진 유전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멜리사 일라도는 이번 연구를 위해 인도네시아 자야 박띠에서 수개월간 머무르며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고 바자우족과 살루안족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홍콩 언론이 본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Why South Koreans in Indonesia are so well accepted, and how the community is set to continue growing

South Koreans make up one of Indonesia's largest ethnic minorities, many of them there to study the Bahasa language; with manufacturing giants showing more interest in opening factories there, their numbers are set to keep on rising

PUBLISHED: Thursday 01 April 2016, 8:11am
UPDATED: Thursday 01 April 2016, 8:00am

COMMENTS: 1



▲ 사진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웹사이트 기사 캡처.

홍콩을 대표하는 신문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를 주목했다.

SCMP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이 잘 적응하는 이유와 한인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과 한국인을 토크모델로 제시했다. 서양인들은 휴양지에서의 추대로, 중국인노동자들은 불법 근로행위 적발로 현지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반면, 한국인들은 외국인으로서 비교적 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홍콩의 유력 영자신문으로 1903년 설립된 SCMP는 2015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인수했다. SCMP는 인도네시아 이민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한인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비결로 대부분의 현지 한국인들이 열심히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면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점을 꼽았다.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한인들은 4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해 살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산재한 100여 개의 한식당과 수십 개의 종교단체를 그 예로 들었다.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I)

언어교육원(BIPA) 관계자의 말을 인용, UI 인도네시아어 과정에 한국인 학생의 비중이 60~70% 정도가 될 정도로 현지어 공부에 열의가 높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BIPA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들과 인터뷰를 통해 한인들의 면학 분위기와 젊은이들의 비전도 꼼꼼하게 취재했다.

현지에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2천여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1976년에서 설립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한국학교라고 소개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천명하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외교, 비즈니스, 문화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호주-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의회 캐슬린 터너 이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기업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 해외로 빠르게 진출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아시아 전역에 공장을 세웠다"며 "더 많은 한국 제조업체들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DONG SEO Furniture
Doors and Furniture Spesialis

Our Product :

- Doors & Frame
- Furniture Oustom
- Interior Molding
- Flooring
- Skirting
- Paint finish
- + Wood Veneer
- + Duco
- Laminate Finish
- + HPL
- + PVC
- Alumunium door & Frame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

Furniture DONGSEO

강문갑의 역사속으로

[신비의 화가 ‘샤라쿠’ 는 김홍도인가?]



▲ <샤라쿠(위), 김홍도(아래)>

우키요에(浮世繪)는 일본 에도시대(1603~1867)에 서민 계층을 기반으로 발달한 풍속화로 기녀, 광대 등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나 풍경, 풍물을 그려낸 것으로 기녀와 가부키 배우의 모습 등을 주제로 하였다. ‘동주제 사락(東州齊寫樂: 도슈사이 샤라쿠)’은 우키요에 그림의 최고봉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1794년 5월부터 1795년 정월까지 약 10개월간 145여점의 작품을 그린 후 홀연히 사라진 정체불명의 화가로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

진 것은 없다. 샤라쿠가 그린 것은 주로 가부키 배우들의 초상화로 당시에는 가부키 배우들의 화려함을 강조하여 대상을 미화해서 그리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샤라쿠는 배우라는 인간의 얼굴을 통하여 긴장된 한순간을 포착하는 주관적인 화풍과 힘찬 필치로, 19세기 후반 유럽 화단에 전파되어 인상과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미술사에 길이 기록되는 샤라쿠는 단원 김홍도와 동시대를 산 같은 경향의 화가

로, 동일 인물은 아닌 것인가? 활동기간이 극단적으로 짧고, 단서가 되는 자료가 미흡한 것이 여러가지 역측을 불러, 30여명이 샤라쿠로 추정되고 있을 만큼 그의 존재를 밝히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샤라쿠로 추정되는 30여명의 인물중에는 김홍도도 있다는 것이다.

샤라쿠가 김홍도가 동일인물로 추측되는 몇 가지 특징은 첫째 샤라쿠의 그림에 나타난 선이 붓 끝이 올라가는 김홍도의 필선과 비슷하며, 둘째 김홍도가 작품활동을 한 기록이 없는 시기와 샤라쿠가 10개월 동안 활동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 셋째 샤라쿠 그림에는 일본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화풍이 접목되는데 이것은 김홍도만이 이를 수 있는 독특한 화풍이라는 점. 넷째 발가락이 6개인 부처의 그림이 두 작가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점 등이 있지만 샤라쿠가 김홍도라고 정확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단원 김홍도는 1745년생으로 사망한 해는 알려지지 않았다.

1788년 김홍도는 왕명으로 50여일 동안 금강산과 영동 지역 일대를 기행하며 <금강산군첩>을 그렸고, 1791년 정조의 어진(御眞)을 그리는데 참여한 공으로 정조 15년(1791) 12월, 충청북도 괴산의 옛 지명인 연풍 현감에 임명되어 1795년까지 재임하였다.

김홍도는 1794년 3월 8일 정조를 알현한 이후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진 후, 1795년 윤2월 28일 정조로부터 군직자격으로 상근하라는 인사명령이 하달되면서 역사기록에 등장한다.

당시 수원성을 축조하던 정조는 오랫동안 통신사의 왕래가 없어 일본상황이 궁금했고, 화약을 비롯한 일본의 병기상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여 김홍도로 하여금 그려오도록 밀명을 내렸고, 이에 김홍도는 일본으로 건너가 가부키 배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활동자금을 마련했다는 설이다.

샤라쿠의 그림은 전체적 신체비율에 비해 손가락이 크며, 담배 파이프를 잡지도 못하여 허공에 뜨도록 그린 것과 두 손이 어깨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 것처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홍도의 풍속화에서도 발견된다. 두 사람의 손을 합쳐 그린 <서당>, 왼손과 오른손을 뒤바꾼 <씨름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오류가 드러나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 <탕귀영감의 초상화(고흐) 배경에 등장한 우키요에, 추성부도(김홍도)>

손가락 인식불능 및 좌우구별 인지장애를 가진 거스트만 증후군 질환에 기인한 것이다.

김홍도는 정조의 절대적 신임에도 불구하고 거스트만 증후군 때문에 어진의 주관화사가 될 수 없었고, 초상화를 단 한점도 그려내지 못했다.

정조 24년(1800),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돌연 승하하자 규장각을 이끌던 많은 개혁파들은 힘을 잃었고, 그 속에 김홍도도 있었다.

김홍도는 말년을 초야에 묻혀 보냈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늦가을의 쓸쓸한 정취를 그린 <추성부도(秋聲賦圖)>는 노년의 비애를 느끼게 하는 그의 마지막 작품이다. 단원에 게는 호가 많다.

고면거사(高眠居士), 취화사(醉畫師), 첩취옹(輒醉翁) 등 익살스런 호와 기거한 장소에 따라 단구(丹邱), 서호(西湖) 등등. 동주제(東州齊) 사락(寫樂)이란 호 역시 단원의 취향을 풍긴다.” 동쪽섬(東州), 즉 일본의 서제에서 그림그리기를 즐김...” 익살스런 호가 아닌가.

“60억 바퀴벌레 키우는 中공장” ... 뜯어보니 7300억 제약산업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쓰촨성의 바퀴벌레 사육 공장을 보도했다. 이 공장에서는 60억 마리에 달하는 바퀴벌레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사진]

중국 쓰촨(四川) 성의 한 사육장에서는 지구 인구수에 맞먹는 60억 마리의 바퀴벌레를 키우는 공장이 있다. 바퀴벌레가 지닌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역으로 이용해 위궤양 등 인체 질병 치료제를 만들기 위함이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하

오이성(好醫生) 그룹이 쓰촨성 시창(西昌) 시에 있는 운동장 2개 크기의 실내농장에서 60억 마리에 이르는 바퀴벌레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뜻하고 습하고 어두운 이 실내농장 안에는 길고 좁은 선반들이 층층이 쌓여 있으며, 한편에는 바퀴벌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와 물을 담

은 컨테이너가 있다.

방호복을 입고 농장 안에 들어간 방문객은 “선반 위와 마루, 천장에 온통 바퀴벌레 천지였다”고 전했다.

이곳 말고도 중국 내에는 많은 바퀴벌레 농장이 있지만, 이곳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바퀴벌레 농장이다.

통상 바퀴벌레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 대규모 농장은 역겨움을 유발하지만, 이 농장은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운영된다.

인공지능은 습도, 먹이 공급, 증식 속도 등 80가지 범주의 데이터를 체크하고 관리해서 바퀴벌레가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하오이성 그룹은 이 바퀴벌레 농장에서 지난 수년간 43억 위안(한화 7300억원)에 달

하는 매출을 올렸으며, 이 매출 대부분은 바퀴벌레로 만든 물약에서 나왔다.

이 물약은 특히 위통이나 화상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고됐으며, 중국 내 4천여 개 병원에 이 물약이 공급된다.

중국 정부는 20여 년의 연구 지원을 통해 바퀴벌레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단백질과 생화학 성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피부와 점막 재생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에서 바퀴벌레로 만든 물약을 먹고 위궤양, 호흡기 질환 등을 치료한 환자의 수는 4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00ml짜리 두 병에 50위안(한화 8500원)인 이 물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모른

채 대부분의 환자는 약을 먹는다. ‘Periplaneta americana’라는 어려운 라틴어 학명으로 물약 성분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학원의 주차오둥 교수는 “지진 등으로 수십억 마리에 달하는 바퀴벌레가 인구 80만 명의 시장 시로 쏟아져 나온다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LITE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BI, 루피아 안정 전망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미국 금리인상이 예고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루피아 변동성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4월에는 BI가 외환시장에 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3월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르자 아디띠야스와라 BI 수석부총재 6일 최근 신흥국 환율 변동성은 미국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결과로, 지난 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린 뒤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FOMC는 올해 총 3차례 인상 기조를 유지했으나,



전체 15명의 FOMC 위원 가운데 7명이 4차례 인상론을 펴 시장 일각에서는 총 4차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르자 수석부총재는 “3월 21일부터 4월 첫 주까지 상황이 안정됐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루피아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 예고에 따라, 루피아/달러 환율이 1월에 달

러대 13,300루피아에서 3월에 13,700루피아로 상승했다. BI는 루피아 펀더멘털 가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장 메커니즘을 유지하면서 루피어를 방어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가 2월 1,280억6천만 달러에서 3월에 1,260만 달러로 감소했다. BI의 루피아 방어와 정부 대외부채 상황이 외환보유고 감소 요인이다.

BI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수입대금 7.9개월분 또는 수입대금과 정부 대외부채 월간 상환금을 합해 7.7개월분이라고 설명하며, 국제기준인 수입대금 3개월분보다 많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소속 경제전문가 에릭 수간디는 해외투자자들의 이슈가 연준리 금리인상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가능성으로 이동함에 따라 루피어를 포함해 일부 통화에 대해 달러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에릭은 4월에 루피아에 대한 압력이 3월처럼 크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BI가 시장개입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외환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 에릭은 BI가 일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비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릭은 최근 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5월과 6월이 외국인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본국으로 보내는 시기여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에릭은 앞으로 수주간 환율이 달러대 13,600~13,800루피아 범위를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루피아 펀더멘털 가치는 달러 대 13,300~13,500루피아 수준으로 현재 루피아가 저평가 상태라고 설명했다.

빠르마따은행 경제전문가 조수아 빠르데데는 FOMC가 3월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예고했고, FOMC위원 중 대부분이 2018년에 금리 7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조수아는 오는 6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비교적 시장이 예상하는 범위에서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괄대리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셔)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셔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셔)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속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어)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어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함.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셔)
스크류 : 독일(GHH-RAND사) 세퍼레이터 : 일본



AL,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셔)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美中 무역전쟁 · 남중국해 확전 우려에 고민 깊어진 아세안

G2 정면대립 속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 이달말 회동 역내외 현안 논의...이해관계 얽혀 또 불협화음 노출 가능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이 통상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아세안의 경제·안보 지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그사이에 낀 아세안 정상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을 끈다.

아세안은 오는 25~28일 싱가포르에서 제32차 정상회의를 열어 역내외 현안을 논의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올해 첫 회의다.

남중국해 사태는 아세안의 안보와 직결돼 있다. 베트남, 필리핀이 중국과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당사국이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높



G2 정면대립 속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 이달말 회동 역내외 현안 논의...이해관계 얽혀 또 불협화음 노출 가능성

고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각 항공모함을 동원하는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남중국해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이런 남중국해 사태는 아세안의 '뜨거운 감자'로 회원국들의 불협화음을 노출해 왔다.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견지하는 베트남, 반중에서 친

중으로 돌아선 필리핀, 중국과 갈수록 경제·군사적으로 밀착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이 정상회의 성명에서 해양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반복하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앞서 아세안은 작년 11월 31차 정상회의를 마치고 사흘이나 늦게 내놓은 성명에서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같은 해 4월 나온 아세안 의장 성명에서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를 거론하지 않아 중국이 '남중국해 외교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년 8월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 등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행동준칙(COC) 제정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

중국이 COC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 COC가 만들어져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과 미국을 주요 교역 파트너로 둔 아세안으로는 두 강대국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면 수출이 타격받고 강한 경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아세안은 지난 6일 열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물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졌지만,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동 성명에는 그 우려를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 교역의 자유를 강조하며 미·중 통상 갈등 격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에 속도를 내자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 협상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CEP가 발효되면 총인구 30억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연합뉴스]

인니 출산율, 박람회 성황 잇나...11월 육아용품 박람회 열려



26일 국제전시 전문기업 글로벌비즈니스비전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8 인도네시아 임신출산육아 박람회(Indonesia Maternity, Baby & Kids Expo -

IMBEX)를 자카르타컨벤션센터에서 250개사 4만명 관람 규모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18 인도네시아 임신출산육아 박람회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B2C 및 B2B 출산육아용품 박람회다.

인도네시아 출산율은 한국 출산율의 약 2배인 2.2명으로, 한해 평균 43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 2억 6,000만명에 이르는 인구는 내수

잠재시장으로 꼽힌다.

전시 분야는 출산용품, 임산부용품, 영유아용품 및 서비스 시스템으로 세부품목은 출산용 카시트, 베이비 케어용품, 장난감, 교육용품, 유아가구, 의류용품, 산모 의류, 음식, 건강용품, 보험 및 안전용품 등이다.

주요 바이어는 무역업, 도소매업, 협회, 정부기관, 유통업, 체인점, 프랜차이즈 등이다.

지난해에는 16개의 한국업

체를 포함해 25개국 229개 업체와 기관이 참가하고 3만 4,000여명의 교육 업계 바이어와 학부모가 관람하는 실적을 거뒀다.

박람회의 한국파트너인 글로벌비즈니스비전 관계자는 "올해 열리는 행사의 국내 참가기업 모집 중"이라고 밝히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제 11기 삼익기술학교 졸업식 개최



▲ 졸업식 후 단체기념촬영 (사진=삼익기술학교 제공)

지난 4월 5일 목요일 오전, 인도네시아 보고르 칠릉시에 위치한 삼익기술학교(구 한-인니기술학교)에서 제 11회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삼익기술학교 이병기 이사장을 비롯해 권희정 대표(삼익약기)와 실습업체 관계자, 보고르 노동청 관계자, 졸업생 및 교직원 약 80명이 참석해 6개월의 노력 끝에 취업하여 사회로 나서는 졸업생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삼익기술학교 이병기이사장은 졸업생들에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친절하고 밝은 미소, 긍정적인 사고, 열심히 일하며 약속을 꼭 지키는 태도를 가지고, 독서와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함으로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축사로 전달하였다.

이번에 졸업하는 삼익기술학교 제 11기는 지난 해 12월 2일에 입학하여 학교에서 3개월 간 피아노 튜닝, 기타 목공예, 제빵, 봉제 4개 과목의 전문지식을 배우고 제2외국어로 한국어 교육을 받았으며, 실습 협력업체인 삼익약기, CJ푸드주르, PT.YURI에서 3개월의 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졸업생 중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성적과 실습에

성실히 임한 학생 17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장학금을 받은 11기 교육생 대표 밍다후딘은 “우리가 삼익기술학교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여 성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감사의 뜻을 한국어로 낭독했다.

삼익기술학교는 한국 정부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삼익약기가 함께 설립했다. 2011년 인도네시아 법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을 인가받고, 2012년 개교하였으며 현재 한국NGO 코피온(CO-PION)이 삼익기술학교 교직원과 함께 인도네시아 저소득 청소년들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총 727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 졸업장 수여 (사진=삼익기술학교 제공)

자카르타에 한-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 개소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한-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시장 진출과 현지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력을 통한 무역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했다.

중기부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는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차 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력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촉진을 위해 한-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를 설립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2016년 8월 한-이란 기술교류센터를 시작으로 4번째 설립된 한-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는 최근 중국·미국 등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아세안 국가 등 신남방 시장 진출과 협력사업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기술교류센터 개소식과 함께 오는 18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기술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해 센터 개소 이후 인도네시아 현지의 기술 수요 발굴·진단업무를 수행

할 예정이다.

이날 한-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 개소식에는 박동철 중기부 정책보좌관,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 멜리아디 쉴비링(Meliad Sembiring) 인도네시아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센터를 통해 식음료·화장품·전자부품·건설장비·플라스틱 소재 등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가 유망한 분야를 발굴·매칭해 기술이전, 부품·소재 수출, 설비이전, 합작투자 등 양국기업 간 다양한 협력사업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고, 한국의 고속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희망하는 아세안 등 주요국가와 중소기업간 기술 교류 매칭과 사업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사관 안전 공지] 국제 물품사기 주의

최근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를 사칭한 물품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범죄수법

- 중국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중국 업체로부터 원자재(가성소다)를 구매하기로 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함

- 중국 업체에서 주문한 제품의 포장지를 사용하였으나, 내용물은 가성소다 일부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저가의 소금을 채워서 발송한 후 연락 두절됨.

국제거래의 특성상 피해를 당할 경우 용의자 검거 및 피해금액 회수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한국 기업 관계자들께서는 해외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그 회사의 기존 거래내용, 재정상황, 신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모르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지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평일 주간) : +62-21-2967-2580

· 대사관 긴급 당직전화(야간, 휴일) : +62-811-852-446

·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체험 연수」 참가자 모집공고

경상남도는 재외교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경남의 명승 고적을 탐방하는 등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모국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주위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1. 행사개요

○ 기 간 : 2018. 7. 23(월) ~ 7. 27(금) [4박 5일]

○ 장 소 : 경상남도 일원

○ 모집인원 : 전체 30명 내외

○ 참가대상 : 재외교민자녀 중 · 고등학생

○ 주요내용

- 경남의 명승고적지, 박물관 등 한국 역사 탐방

- 한과 만들기, 매듭, 다도 등 전통 문화 체험 및 예절 교육

- 경남 주요 산업시설 방문 등

○ 비용부담 : (경상남도)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체재비 (참가자) 왕복국제항공료, 여행자보험

2. 지원자격

○ 거주국적자, 영주권자,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자녀 등의 자격으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 합숙연수(강의, 여행 등에 지장이 없는 심신이 건강한 자

○ 최근 3년 이내 동 연수 사업 미참가자

3. 신청 및 선정

○ 경상남도 자카르타사무소 (소장 이동훈, 0812 1066 7402)

○ 참가자 선발은 경남도청에서 선정 후 개별통보

MODERN GOLF & CC

KOREAN WEEKDAYS

골프 프로모션

IDR 295.000
매주 평일(월~금)

KOREAN LADIES WALKING GOLF

IDR 325.000*
매주 평일(월~금)
* WALKING GOLF

KOREAN WALKING GOLF 무료제공*

*시원한 맥주 1잔

행사 기간 및 해당 조건

- ✓ 한국인에 한함
- ✓ 2018년 6월 31일까지
- ✓ 여권 또는 키타스를 제시해야함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 **+6221 552 9228**

Jl. Modern Golf Raya, Perumahan Kota Modern Tangerang 15117 - Indonesia
Email : marketing@moderngolf.co.id | Website : www.moderngolf.co.id

MAXX
BOX
LIPPO VILLAGE

Korean Festival

10 - 13 May 2018 | 10AM
At Main Atrium, Ground Floor

행사안내

- 자이안트 비빔밥 쿠키 10 May | 2.30PM
- 한국 전통 무용 10 May | 3PM & 12 May | 7.30PM
- 난타 퍼포먼스 10 May | 3PM & 12 May | 7PM
- 한국 음식 시식회 11 May | 4PM
- 사생대회 12 May | 2PM
- Robocar Poli 포토존 12 May | 2.30PM & 5PM

전시회

한국 길거리음식 & 스낵 | 한국 관광 소개
Beauty & Healthcare | Language Class
VR Game

행사 문의

허미숙 - 0812 8199 9542 (WA)

Organized by: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 한인회**
KOREAN BANTEN ASSOCIATION

Supported by:

-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  **KOREA TOURISM ORGANIZATION**
www.visitkorea.or.kr
-  **아름다운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한국콘텐츠진흥원
-  **BOOKS & BEYOND**
-  **Imagine your Korea**
-  **해외 한식당 자카르타 협의회**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